

제주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목소리

시민·대학생, 진상규명·선관위 개혁·재발방지 대책 촉구 도내 보수진영 중심 부정선거 의혹 제기·재선거 주장도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제주지역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재선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전국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현재까지 91곳이다.

참여자치지역연대는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라며 “전체 유권자의 110%에 해당하는 예산을 배정 받고도 실제로는 50%만 인쇄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시민들의 분노를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부정선거’와는 거리가 있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선관위의 전면개혁,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다”라고 강조했다.

제주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가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되는 현실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선관위가 분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원인을 투명하게 밝혀라”며 “여야 정치권은 단순히 정치적인 공방으로만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도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고기철 국민의힘 전 제주도당위원장은 같은 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자체가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부정선거”라며 전국 단위 재선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전 도당위원장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인명부 누락, 투표 지연 및 중단 사태는 대한민국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원선거 노형동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무소속 고민수 후보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전국 단위 재선거를 요구했다.

오소범·양유리기자

상명리, 해수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5년간 63억2000만원 투입 공동작업장 등 건립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에 최종 선정됐다. 상명리에는 앞으로 5년간 6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이 구축될 전망이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9일 제주도 한림읍 상명리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 배후 지역의 중심 거점을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제주도 한림읍 상명리 일원에는 오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3억2000만원(국비 42억6300만원, 지방비 18억2700만원, 자부담 2억3000만원)이 투입돼 거점 개발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 복지·문화 인프라를 채울 ‘상명 이음센터’와 야외

복합 공간인 ‘상명 이음광장’이 조성된다. 이음센터에는 전 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주민활동실과 시니어 도서관, 청년 유입을 위한 공유 오피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와 연계해 ‘상명 노후골목 개선사업’이 진행된다.

또한, 마을의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과 고령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온 저장고를 갖춘 ‘상명 공동작업장’과 친환경 농특산물 판로가 될 ‘상명 직거래매장’이 설치된다. 아울러 시설의 성공적인 주민 주도형 운영을 돕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S/W)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을 위해 문 의원은 중산간 지역 균형 발전의 당위성을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 설명해왔다.

문 의원은 “이번 성과는 살기 좋은 상명리를 만들기 위해 함께 애써주시 주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상명리가 활력 넘치는 거점 마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학교 현장 폭염 대책, 온열질환 못 막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 ‘2026 폭염감시단’ 활동 선포

제주지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9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026 폭염감시단’ 활동 시작을 알리며 이같이 요구했다.

제주지부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달 21~29일 전국 학교 급식·청소·시설 노동자 58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근무 중 온열질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 시설이 설치된 학교는 94.5%에 달했지만 위치와 온·습도, 환기 등 이용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은 35%에 그쳤다. 고용노동부 지침인 ‘33℃ 이상 시 2시간 내 20분 휴식’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도 전체의 6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9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폭염감시단’ 활동 시작을 알렸다.

제주지부는 학교 현장 노동자가 온열질환에 노출돼 있음에도 폭염 대책은 “탁상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급식실 노동자들은 전신 위생복과 방수 앞치마, 장화 등을 착용한 채 고온의 수증기와 열기 속에서 작업하지만 교육청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벽면에 걸린 온도계 수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의복보정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적용하면 실측 온도가 30℃인 경우 실제

노동자가 느끼는 온도는 33℃를 넘어선다는 게 제주지부의 설명이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 학교 급식·청소 노동자 220명은 오는 9월 말까지 폭염감시단으로 활동하며 작업 현장의 온습도를 직접 측정해 기록한다. 이를 통해 ▷폭염기 고열 조리 공정 축소와 식단 조정 ▷청소 노동자 작업공간 냉방기 설치와 보냉장구 지급 등 폭염 대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오는 7월 10일까지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0일까지 ‘2027년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생활 속 불편 사항과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면 이를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서비스 개선 사업을 지원한다.

공모 분야는 생활,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 6개다. 사업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주도형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와 손잡는 법인매칭형으로 나뉜다.

선정된 사업에는 개소당 최대 2억원이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붙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당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